



‘지역 혁신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’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

- 한덕수 총리 주재 「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」 개최 -
- 5개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-
- (규제자유특구) ①폐치아와 ②어류부산물 재활용, ③소형 수소 모빌리티, ④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⑤세포배양식품 개발 등 지역 혁신성장 지원
- (글로벌 혁신특구) ①②바이오헬스, ③직류 에너지산업, ④해양모빌리티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

□ 정부는 4.30일(화) 한덕수 국무총리(위원장)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,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(안)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(안) 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<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4.4.30.(목) 15:00 /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
- 참석 대상 : 국무총리(위원장), 중기부장관(간사), 관계부처장, 민간위원 등 총 40명
- 안건 :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(5건) 및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(4건) 등

-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·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으로서,
- 현재까지 34개 특구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, 15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, 6,800여명의 일자리 창출,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.
- 오늘 최초로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·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는 지역이다.
-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,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.

- 또한,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,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,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 총리는 “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” 기대하면서,
-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“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”로, “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“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”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하여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<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>

- **(경북 세포배양식품)** 세포배양식품*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.
 - *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/ 현재 싱가포르, 미국에서 승인된 초기 단계
-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,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*이 있었다.
 - *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,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~8배 증가 가능
- 경북은 '23년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중으로,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(대구 Innovation-덴탈)**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(의료기기)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.

○ 매년 버려지는 1,300만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*이 부각되고 있으나,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.

*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골이식재로 개발·상용화, 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(자가치아, 소뼈 등)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

○ 대구는 치의학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*되어 있어,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치과분야 전국 3위, 대구 의료기기 생산 중 절반이상(57%)을 임플란트 차지 등

□ **(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)**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*을 진행한다.

*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로, 이러한 안구(오메가3), 껍질(콜라겐), 뼈(칼슘)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, 의약품원료 등 추진

○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시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,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%*(어류 25%, 참치 20%)에 불과한 상황이다.

*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어류인 대구 부산물을 90%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중

○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 발생, 다수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,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중으로,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(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)**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.

○ 수소는 전기 대비 ①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②배터리 수명이 길고, ③충전 시간도 짧아,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,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.

* ①수소 150km vs 전기 60km, ②수소 5~10년 vs 전기 1년, ③수소 10분 vs 전기 10시간

○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*중으로,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 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(버스)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(바이크)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 많이 밀집(234개), '23~'32년 수소산업에 2조8천억원 투자계획

- **(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)**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.
 -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*받는 가운데,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**이나,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.
 - *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능력이 우수하며, 상온·상압으로 운반 가능
 - **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직접 추출할 경우 10~30%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나,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수소로 개질함으로써 에너지 손실 방지
 -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*를 갖추고 있으며,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(서산), 암모니아·수소 부두(당진) 등
 - **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친환경 그린수소를 운반이 쉬운 액화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 및 내륙에 공급 →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생산

<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>

- **(강원 AI 헬스케어)** 분산형 임상체계*, 의사-간호사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·실증 및 컨설팅·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.
 - * 의약품·의약기기의 임상시험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절차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
 - 웨어러블·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,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. AI·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, 국내는 의료법·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.
 - 아울러,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, 원격지 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.
 -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*를 바탕으로,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·의료기기 개발, 원격의료를 촉진시키고, 해외 진출**을 지원함으로써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건강보험공단·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1,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보유
 - ** 유럽 CE 인증기관인 독일 의료기기전문 TÜV 라인란드,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협업

□ **(충북 첨단재생바이오)**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·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.

○ 전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* 중이나, 국내는 첨단재생 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*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.

* '21년 249억달러→'26년 581억달러로 연평균 15%성장 전망(영국시장조사기관 Technavio)

**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'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 임상연구는 28건에 불과

- 올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*에 따라 임상연구가 전면 허용될 예정 ('25.2월 시행)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,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.

* (현행) 임상연구 제한적 허용, 치료 불가→ (개정) 임상연구 모두 허용, 치료 제한적 허용(중대희귀난치)

** (규제) 복지부내 첨단재생의료 심의회·안전관리기관(보건연), 세포처리시설에 허가인력만 참여
→ (특례) 특구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심의회·안전관리기관, 허가받은 병원인력뿐 아니라 개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·효과적인 임상연구 추진

○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,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, 해외 진출*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아시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공동연구·임상 등 지원

□ **(전남 직류산업)**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*를 구축하여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.

* 규제자유특구로 기구축된 중전압 직류배전망(35KV, 전세계 3번째)에 통합하여, 직류전기의 중·저전압 변환(35KV→5KV→1.5KV), 교류전기의 직류 변환 등 구축

○ 미국·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*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,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.

*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생산, 대부분 가전제품·전기차는 직류 소비 등 감안시, 현행 교류 전력망은 직류-교류 간 전력 변환시 에너지 손실 상당(10~15%)

○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*를 토대로,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·공동 R&D 등 해외 협력**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.

* 규제자유특구 인프라, 에너지밸리에 한전 등 612개 관련기업, 신재생에너지 발전 풍부

** 미국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의 인증 지원,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R&D 등

□ (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) 친환경·스마트화 선박 기술*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·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.

* 수소·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,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(OCCS), 풍력보조 시스템 등

○ 국제해사기구(IMO) 주도 ‘2050 해운탄소중립(Net-Zero)’ 목표에 따라 친환경·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,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*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.

* 탄소포집 시스템 탑재 기준 부재, 수소·암모니아 친환경 선박의 질소배출 기준 부재 등

○ 부산은 우수 인프라*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·해양산업을 추진 중으로,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, 해외 실증·인증 등 해외 협력**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(전국 조선기업의 30%) 집적

** 한미녹색해운항로 실증, 글로벌 인증기관인 미국(EPA)·그리스(CE Med) 등 협력

<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>

□ 한편, 이날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.(참고3)

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(임기 2년, 1회 연임 가능)

○ 신임 위원들은 신기술·신산업, 규제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, 다양한 시각에서 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	책임자	팀 장	구교은 (044-200-2446)
		담당자	사무관	양희경 (044-200-250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

특구명	사업개요 및 규제현황
<p>① 경북 세포배양 식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세포배양식품 육성 위한 동물세포 수급·관리체계 구축 - (필요성) 세포배양식품산업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잠재력 높음, 경북은 지원센터 등 세포배양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 ○ (규제현황)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 기준 부재 등 ※ 규제법령 : 농식품부 「동물보호법」, 「축산법」
<p>② 대구 Inno-덴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폐치아를 운반·가공하여 치과용 골이식재로 개발 추진 - (필요성) 연간 1,300만개 폐치아의 재활용시 가격경쟁력 우수, 대구는 치과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의 56% 등 치과산업에 특화 *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본인치아로 잇몸뼈 재건 수술(골이식재)을 개발하여, 현재 본인치아는 우수한 골이식재로 활용 중 ○ (규제현황) 태반을 제외한 인체유래물 재활용 금지 ※ 규제법령 : 환경부 「폐기물 관리법」
<p>③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참치 등 어류 부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(예: 오메가3·콜라겐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, 펫사료) - (필요성) 국내의 낮은 어류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(20→80%), 경남은 국내최대 수산부산물 발생(30%), 관련기업 등 수산업 특화 ○ (규제현황) 수산부산물 재활용 세부기준 부재(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) ※ 규제법령 : 환경부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
<p>④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화물용 카고바이크 등 생활밀착용 모빌리티 전용 수소 연료전지(500W급) 개발 및 충전시스템 마련 - (필요성) 수소산업을 대형(버스 등)에서 소형 모빌리티(바이크 등)로 확대, 경남은 다수의 수소기업(전국 2위, 234개), 수소정책 적극 추진 중 * 전기 대비 수소가 주행거리↑, 배터리 수명↑, 충전시간↓ 등 소형모빌리티로 우수 ○ (규제현황) 카고바이크용 연료전지 및 소형 모빌리티용 충전 기준 부재 ※ 규제법령 : 산업부 「수소법」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등
<p>⑤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수소 캐리어인 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(45KW급) - (필요성)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암모니아 활용기술 필요, 충남은 세계 최대연료전지발전소, 암모니아·수소 부두 등 환경 우수 ○ (규제현황)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기준 부재 ※ 규제법령 : 산업부 「고정형 연료전지에 관한 상세기준(KGS 코드)」

특구명	사업개요 및 규제현황
<p>① 강원 AI 헬스케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①분산형 임상시험, 원격협진(의사-간호사) 시스템 구축, ②컨설팅(유럽CE) 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헬스케어중심지로 도약 추진 - (필요성) 코로나 이후 분산형 임상시험, 원격협진 등 수요 확대, 강원은 규제자유특구 경험*, 우수인프라** 등 바이오헬스산업 추진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디지털헬스케어(~'25.8월): 개인-의사간 원격의료 및 포터블 엑스레이 실증 중 ** 건강보험공단-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데이터, 1,600여개 바이오헬스기업 ○ (규제현황) 의료기관만 임상시험 허용, 약배송 금지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규제법령 : 복지부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개보위 「개인정보보호법」
<p>②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①특구 맞춤형 첨단재생 플랫폼 구축, ②컨설팅(日쇼난 iPark) 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첨단재생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추진 - (필요성)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*으로 임상연구·치료 활성화 기대, 충북은 국내 최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등 관련산업발전에 최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임상연구 제한 허용, 치료 불가→ 임상연구 모두 허용, 치료 제한 허용(25.2월~) ○ (규제현황) 복지부의 엄격한 첨단재생의료심의위 절차 및 안전관리기관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규제법령 : 복지부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
<p>③ 전남 직류산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①중저전압 직류 배전망 인프라* 구축과 ②선도국과 협력해 국제표준 등 해외진출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도약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직류전기의 중저전압 변환(35KV→5KV→1.5KV), 교류전기의 직류변환 등 - (필요성) 기존 교류배전망에 비해 효율이 높은 직류 배전망에 관심 확대, 전남은 규제자유특구 경험*, 에너지신산업 단지 등 관련생태계 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에너지신산업(~'25.12월): 전세계 3번째로 중전압 직류배전망(35KV) 실증체계 구축 ○ (규제현황) 직류 기자재(변환장치 등) 관련 안전기준 부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규제법령 : 산업부 「전기사업법」, 「한국전기설비규정(KEC)」 등
<p>④ 부산 차세대해양 모빌리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개요) ① 친환경·스마트화 선박기술 실증과 ②컨설팅(佛선급BV), 해외실증(한미 북색해운항로) 등 진출 지원하여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 - (필요성) 국제해사기구(IMO) 주도 '2050 탄소중립' 등으로 경쟁 치열, 부산은 규제자유특구 경험*, 다수 기관과 기업(531개) 등 생태계 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양모빌리티(~'24.11): 중소형 선박의 LPG추진시스템 실증 등 ○ (규제현황) 탄소포집시스템 탑재 등 친환경 선박 설비기준 부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규제법령 : 해수부 「선박안전법」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

참고 3

위촉위원 명단

사진	성명	주요 경력 및 학력	위촉만료	분야
	김덕재	· (現)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· (現) (주)타임 대표이사,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사	'26.4.29	신기술 · 신산업
	송영출	· (現) 광운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· (前) 대학평의회 의장	'25.11.3. (연임)	
	유주연	· (現)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· (前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	'25.11.3. (연임)	
	이성엽	· (現)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· (現) 마이데이터포럼 회장	'25.11.3. (연임)	
	박일준	· (現)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· (前) 산업부 2차관(행시 31회)	'26.4.29	규제 개혁
	한현욱	· (現)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· (前)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	'25.11.3. (연임)	
	송예나	· (現)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· (現) 국무총리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	'25.11.16.	균형 발전
	조혜영	· (現)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· (現)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	'25.11.16.	
	윤수현	· (現) 한국소비자원 원장 · (前)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장	'25.11.16.	소비자 보호
	허영재	· (現) (사)한국체인스토협회 상근부회장 · (前) 국회의장 정무기획비서관, 정책수석비서관	'25.11.16.	국회 추천
	하정림	· (現)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· (前) 김앤장법률사무소('15~'18)	'25.11.16.	